

2025학년도 1학기 문헌연구보고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 :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름	송경빈
전공	경제학과
학번	20240802

목차

- i . 표 목차
- ii . 그림 목차
- iii . 국문 초록

I . 서론

- i . 이론적 배경
- ii . 연구 문제
- iii . 연구의 목적

II . 본론

- i . 연구 절차
- ii . 연구 결과 및 분석

III. 결론 및 제언

IV. 참고 문헌

i . 표 목차

<표1> 미디어 문해력 교육 관련 부처별 현황

ii . 그림 목차

<그림1> Relationship between the reading item of distinguishing facts from opinions and the index of knowledge of reading strategies for assessing the credibility of sources

<그림2> 초중고 교원 5,848명 대상 각 학생 문해력 수준 평가 설문

<그림3> 초중고 교원 5,848명 대상 학생 문해력 관련 문제 현황 척도 평가 설문

<그림4> 10대 청소년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시간

<그림5> 10대 청소년 인터넷 이용 목적(복수 응답) 그래프

<그림6> Relationship between access to digital resources at home and emergent aspects of reading

<그림7> Relationship between Percentage correct in the reading item of distinguishing facts from opinions(Equated P+, Rapa Nui Question 3) and Percentage of students who were taught how to detect whether the information is subjective or biased

<그림8> Relationship between Percentage correct in the reading item of distinguishing facts from opinions(Equated P+, Rapa Nui Question 3) and mean reading performance

<그림9> 민주시민교육 교육 목표 및 내용 기준(안)

<그림10> 교과목 편제 및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 내용 재구조화

iii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미디어 문해력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미디어 문해력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한국 청소년의 미디어 문해력 수준이 낮음과 교육에 결여가 있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미디어 문해력 수준과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 청소년의 미디어 문해력 수준이 낮음을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음을 파악한다. 이에 미디어 문해력 교육에 관해 선구적인 국가를 선별하여 교육적 제도를 분석하여 한국과 비교한다.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제화와 정책적 지원, 교육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I. 서론

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미디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미디어 문해력은 미디어(Media)와 문해력(Literacy)의 합성어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문해력이다.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직접 생산하고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의미가 다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나,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미디어 접근 능력인 접근성, 미디어 매체의 언어와 문법, 작동 원리, 맥락 등에 대한 이해력,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해석 및 평가하는 비판력,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과 이를 이용해 사회적 소통에 참여하는 참여 능력.

이와 같이 미디어 문해력 개념의 범위가 명료히 정의된 바가 없어 해석의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정보 문해력과 디지털 문해력, 데이터 문해력 등과 같은 개념과 혼동 가능성성이 있다. 정보 문해력은 ‘정보’ 그 자체의 탐색과 평가, 활용 등에 초점을 맞추며, 신뢰성과 정확성 판단 등 정보의 질적 평가에 초점을 둔다. 디지털 문해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미디어 활용 능력에 초점을 둔다. 데이터 문해력은 수치화된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초점을 둔다. 미디어 문해력은 앞서 설명한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으로 위 개념들과 중첩되는 부분도 존재하나, 구체적인 의미와 적용 범위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 핵심 키워드인 미디어 문해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념적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다음의 조작적 정의는 미디어 문해력의 개념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될 단어의 해석에 유의하길 바란다. 미디어는 정보를 주고받는 매체의 의미를 지닌다. 매체는 어떠한 사건 혹은 현상 등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책과 신문, 텔레비전, 영화 등이 있으며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등 디지털상의 매체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대상의 범위를 책과 신문 등 고전적인 매체를 포함하되, 디지털 매체에 초점을 두고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디어 문해력에 대한 해석은 다음 네 가지로 한정한다. 매체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접근성), 접근한(접한) 정보의 언어와 맥락 등을 토대로 정보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이해하는 능력(이해력), 이해한 정보를 해석 및 평가 할 수 있는 능력(비판력), 이를 활용한 표현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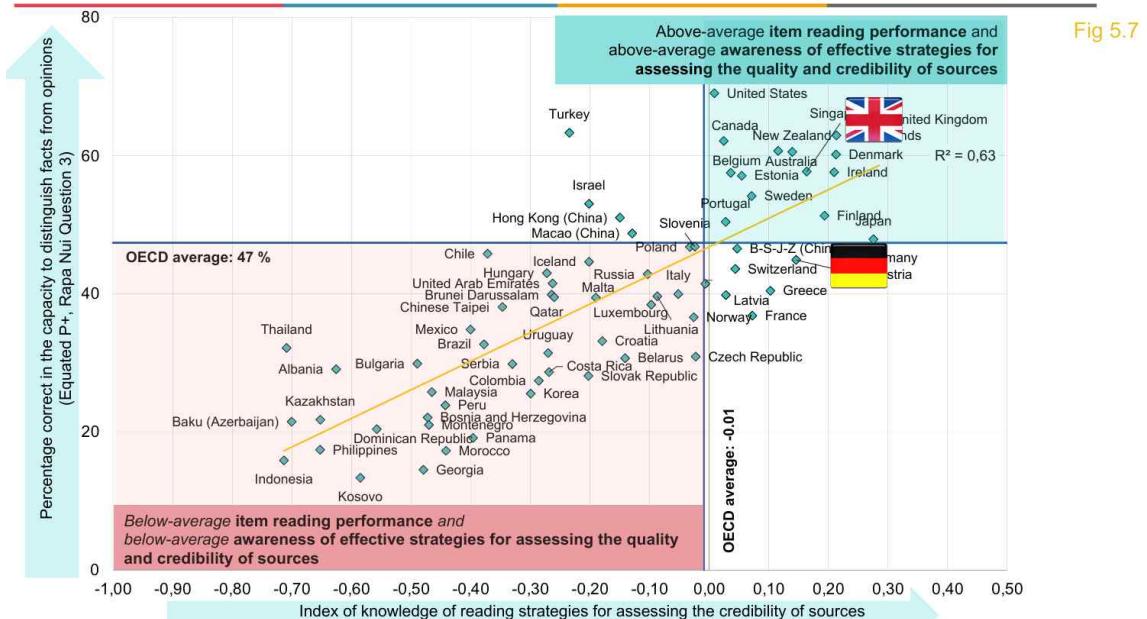
ii. 연구 문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는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용어로는 ‘허위 정보(misinformation)’와 ‘허위 조작 정보(disinformation)’가 있다. 허위 정보는 의도와 관계없이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여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허위 조작 정보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가짜 뉴스는 하위 개념이다.¹⁾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은 현대의 인공지능(AI) 기술을 발달로 합성 오디오나 딥페이크 기술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한 형태로 발전했다. 이러한 정보들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붕괴하고 갈등이 조장된다. 특히, 뉴스의 경우 정치적 이유로 조작된 허위 정보가 국민에게 배포된다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기업의 평판 훼손, 주식·금융 시장에 혼란 등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1) 방송통신위원회(2023). 가짜 뉴스 실태와 대응 방안-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9p

인터넷 매체에는 방대한 정보들이 내포되어 있다. 기술의 발달로 방대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반대로 해석하자면 방대한 정보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높은 수준의 미디어 문해력을 지니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미디어 문해력이 낮은 수준이라면 정보들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판단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 예로 전문가의 의견이라면 무조건 신뢰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평가한다.²⁾

Relationship between the reading item of distinguishing facts from opinions and the index of knowledge of reading strategies for assessing the credibility of sources



위 자료는 OECD에서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실과 의견 구분 능력과 출처 신뢰성 평가 능력을 위한 독해 전략 지식을 지표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³⁾ 자료에서 분석한 사실과 의견 구분 능력, 출처 신뢰성 평가 능력은 미디어 문해력의 핵심 구성 요소다. 한국의 경우, OECD에서 집계한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 청소년의 미디어 문해력 수준은 절대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의 발달은 낮은 수준의 미디어 문해력의 문제점을 더 심화시킨다. 알고리즘은 입력(Input)을 처리(Processing)하여 출력값(Output)을 도출하는 규칙의 집합이다. 이러한 알고리즘 정보를 활용하여 검색 엔진⁴⁾, 소셜미디어, 동영상 플랫폼에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의 관심사, 이전 검색·시청 기록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정보를 노출한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정보 편향을 발생시키며 궁극적으로 확증 편향을 심화시킨다. 미디어 문해력은 편향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으로 낮은 수준의 미디어 문해력은 확증 편향을 더욱 심화시킨다. 장기적으로 확증 편향은 사회 참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미디어 문해력 결여의 문제점은 단순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기 어렵다.

앞서, 미디어 문해력의 중요성과 미디어 문해력 결여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개인의 문해력 결여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미디어 문해력은 낮은 수준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잠정적 문제점으로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를 미디어 문해력 교육의 문제라고 가정하고 실제 현황을

②) 연합뉴스(2021.12.18.), 권선미 기자, 문해력 리포트 ② 한국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마저...OECD 바닥권

3) OECD(2021). 21st -century Readers Developing literacy skills in a digital world. 부록 자료 18p; 본 자료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만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얻은 통계 자료를 사용한다. 위 그레프는 참여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증가 인구의 사유 시각이나 노트 드레, 디자인 등 전문 지식과 견해, 노력, 전문 시리즈 펴는 드록을 주제로 교육부 보석으로 차지된다.

내용으로 수상·인수·인터넷 사용 시선, 뉴스란 뉴스 녹색, 니시를 성장 모양, 긍정적, 성장 신뢰성, 생기 등등을 조사하여 교재·문학적인 사료로 활용된다.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i. 연구의 목적

앞서, 미디어 문해력 결여의 문제는 단순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라고 본 연구에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교육’이다. 교육을 가장 접하기 쉬운 시기이자 정보의 흡수력이 가장 높은 시기는 청소년 시기이다. 저자는 청소년, 대학생 시기에 미디어 문해력에 관한 교육의 부재를 인식하여 본 연구를 진행한다.

가. 한국 미디어 문해력 수준 및 교육 현황

본 연구에서는 선행적으로 한국의 미디어 문해력 수준을 파악할 것이다. 나이대별 성취 수준, 미디어 문해력의 세부 항목에 대한 성취도 수준 등 다방면으로 파악할 것이다.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논하기 이전에 한국인의 미디어 문해력 수준을 파악이 필요하다. 미디어 문해력 수준과 더불어 제도적 차원에서 문해력 교육이 어느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미디어 문해력 수준과 교육 현황을 통해 한국의 미디어 문해력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나. 해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사례

한국 미디어 문해력 수준과 교육 현황을 파악한 후, 해외의 긍정적 사례를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미디어 문해력 수준이 높은 나라를 선별한 후 해당국의 사례를 정책적인 측면과 실제 성취 수준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는 한국의 교육 현황과 비교하는 자료로써 사용되며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고 저자의 제언과 함께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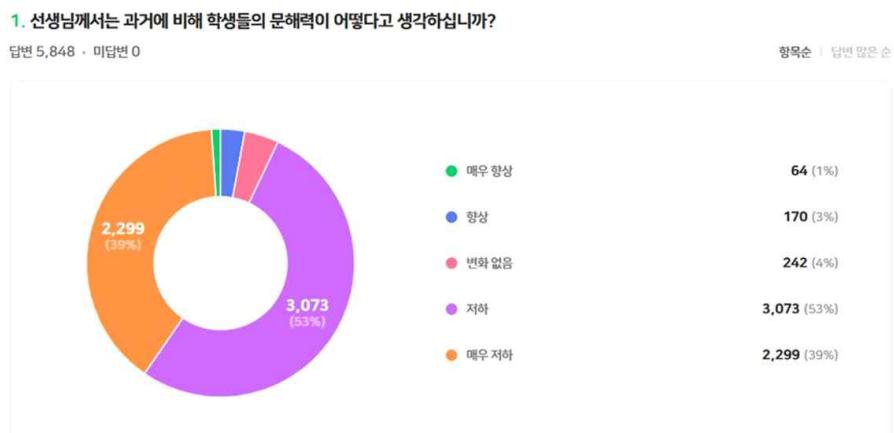
i.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문헌 연구법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문헌 연구법은 직접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문헌을 활용하여 연구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 특히, 국가 단위의 미디어 문해력 수준을 조사할 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모집단을 대표할 표본 조사 과정에서 표본의 범위와 표본 수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 단위의 모집단을 대표할 표본 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미디어 문해력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세부 항목에 대한 조사와 이들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지표를 도출하는 모델 설정에서 신뢰성 있는 지표를 도출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책과 선행 논문, 보고서, 통계 자료, 신문 기사 등과 같은 문헌을 수집·분석하여 연구한다. 앞서 제언한 잠정적 문제점과 저자의 주장에 편향적인 자료 수집에 유의하며 다각도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ii. 연구 결과 및 분석

가. 한국 미디어 문해력 수준 및 교육 현황

① 초중고 대상 문해력 관련 평가 지표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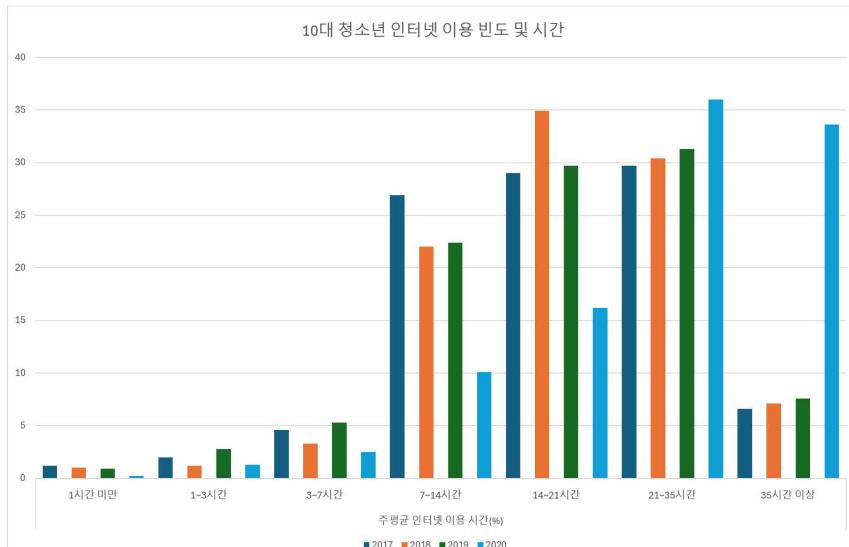
(초중고 교원 5,848명 대상 각 학생 문해력 수준 평가 설문)



(초중고 교원 5,848명 대상 학생 문해력 관련 문제 현황 척도 평가 설문)

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초·중·고교 교원 5,848명(특수, 유치원 제외)을 대상으로 2024.9.20~9.26에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8% 포인트)

② 10대 인터넷 사용 현황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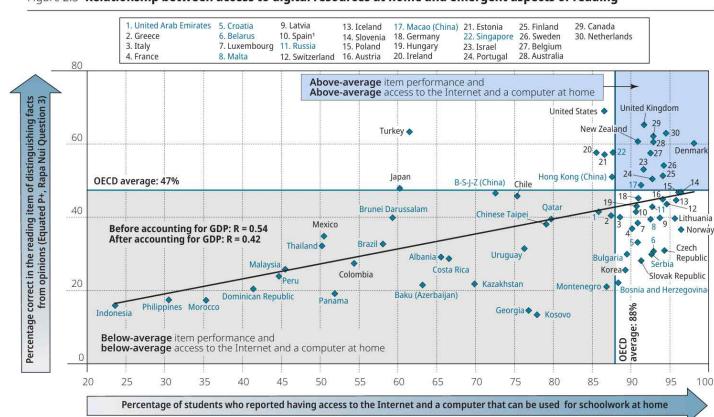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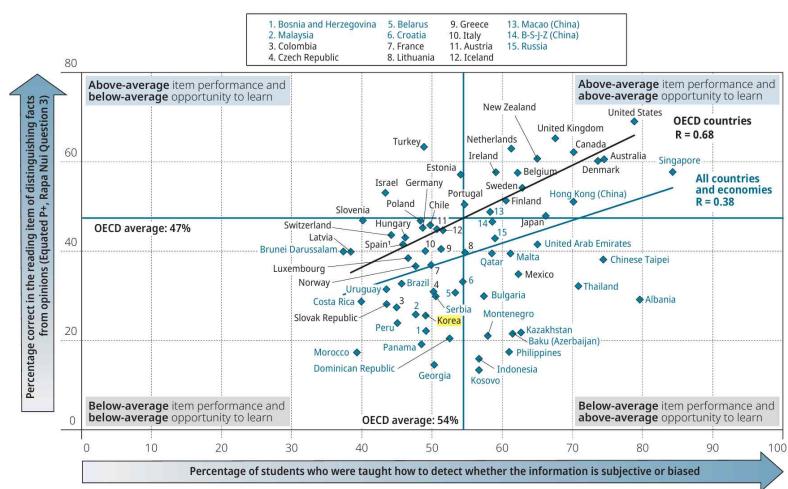
● 인터넷 이용 목적(10대, 복수응답)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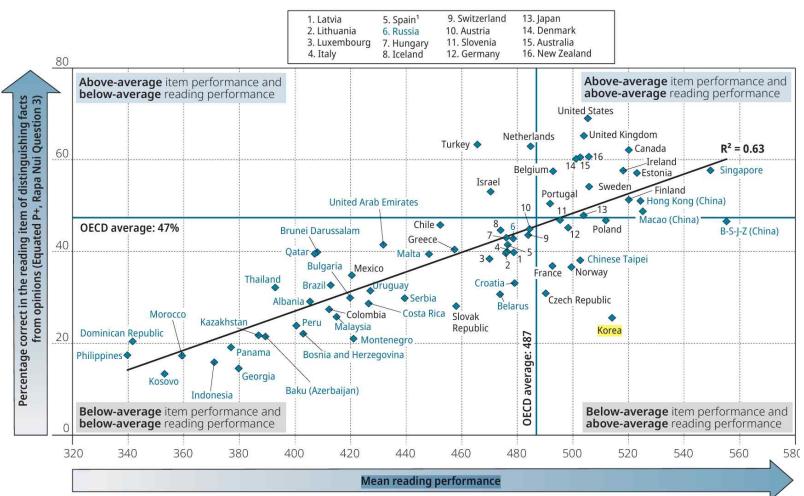
③ OECD, 청소년 대상 미디어 문해력 관련 지표⁷⁾

Figure 2.3 Relationship between access to digital resources at home and emergent aspects of reading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을 올바르게 발휘한 학생의 비율/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교육받았다고 응답한 비율)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을 올바르게 발휘한 학생의 비율/ 학생들의 평균 읽기 성취도)

④ 한국의 미디어 문해력 교육 현황

2022 교육과정 개정의 추진 배경 중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 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 목적이 있다. 공감/소통 콘서트나 교육과정 협장 네트워크 등을 통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방향과 학습 환경을 제시한다. 디지털과 AI 교육 환경에 맞게 학습 및 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민주 시민 교육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의 핵심 내용 요소로써 디지털 문해력을 명시하고 있다.

8)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2021),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민주시민교육 교육 목표 및 내용 기준(안)

- ◆ 민주시민교육의 시민 가치를 교육 목표에 반영(예시)
 - ⇒ 현행 교육목표에 진술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수정·보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태도를 함양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진로와 삶의 의미를 탐색하며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지역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기준(안) 개발 ⇒ 모든 교과와 연계

- [주요 영역] ▲ 민주주의와 사회적 현안 ▲ 비판적 사고 ▲ 민주적 의사결정 ▲ 시민의 참여와 실천 등
- [내용 요소] ▲ 문화 다양성 ▲ **미디어** 리터러시 ▲ 사회적 공감과 의사소통 ▲ 지역 및 국가공동체 참여와 실천 등

구분	교과목 편제 및 교육과정 편성	교과 내용 재구조화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관련 내용을 학생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 개설과목으로 편성 가능 ※ 실과 교과를 포함하여 학교 자율시간 활용을 통한 34시간 이상 시수 확보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관련 교과(실과) 내용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기술 분야 기초 개념·원리 등 반영 • 놀이·체험 활동 중심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등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과목 신설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자율시간 및 교과(군)별 시수 증감을 통한 정보시수 확대 이수 기준 마련 ※ (개선안) 정보 과목은 학교 자율시간을 확보 하여 68시간 이상 편성 운영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learning about AI) 관련 내용 강화 •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 교육과 연계한 기본·심화를 위한 정보 과목 개설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과를 신설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 ※ (현행) 기술·기정교과군→(개선안) 기술·기정·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 과목 신설

현재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미디어 문해력에 관한 교육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행정부의 각 부처의 법률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에 관련 조항이 있다.

<표1> 미디어 문해력 교육 관련 부처별 현황⁹⁾

정부 부처	근거 법률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제64조(지능정보사회윤리)
	소프트웨어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9항 - 제32조(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 제33조(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진흥)

9)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고찰(2024), 이순덕, <표1>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정부 부처	근거 법률	주요 내용
교육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나. 해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사례

OECD에서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실과 의견 구분 능력과 출처 신뢰성 평가 능력을 위한 독해 전략 지식을 지표의 관계와 The Media Literacy Index 2023¹⁰⁾을 토대로 미디어 문해력 교육 현황 조사 대상을 미국과 영국, 핀란드로 선정하고자 한다.

① 미국

미국은 미연방 차원에서의 미디어 문해력 교육 법령이나 정책은 없다. 미국은 국가 특성상 각 주의 정부가 교육 정책과 법률을 독자적으로 입법화하고 시행한다. 워싱턴주가 최초로 미디어 문해력에 관련된 학교 법을 통과시킨 이후, 14개 이상의 주에서 미디어 문해력 교육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에 옮겼다.¹¹⁾ 아래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의 선두를 이끈 워싱턴주의 법령이다.¹²⁾ 그 외에도 민간 협력 단체로 NAMLE, Media Literacy Now(MLN), CML, Media Education Lab 등이 있다.

② 영국

영국은 법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의무화한 바는 없다. 그러나, 최근 영국 정부 장관들은 학교에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학교에서 독립적인 교과과정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¹³⁾ 지난해 10월에 영국 정부 장관과 행정부 부처들이 공청회에 참관하여 미디어 문해력 교육에 관한 토론을 나눴다. 더불어 영국 정부는 온라인 미디어 문해력 전략(Online Media Literacy Strategy)을 시행 중이다.

영국은 2003년 통신·방송 분야의 주요 법률인 커뮤니케이션 법(Communications Act)을 제정했다. 법의 주요 목적은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 전자 미디어 전반에 관해 규제의 체계화, 현대화, 공공 이익 증진이다. 특히, 11항에서 Ofcom은 미디어 문해력 증진을 위해 새로이 설립된 규제 기관이다. Ofcom은 3년 단위로 미디어 문해력 전략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전략의 실행과 성과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의 제정으로 의무가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으로 확장된 바가 있다. Ofcom은 법적 근거에 따라 학교,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협력하여 미디어 문해력 교육과 관련된 연구,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제도적 장치이다.

③ 핀란드

핀란드는 법률적으로 미디어 문해력 교육에 대한 기반이 잡혀 있다. 핀란드의 기초교육법¹⁴⁾에 근거하여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명시적으로 함유하지 않으나, 이러한 교육 의무화의 근거가 된다. 핀란드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체계와 교육의 기본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제11조, 14조, 15조를 살펴보면 각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10)Open Society Institute Sofia, 불가리아의 비영리 민간 단체 주도하에 만들어진 미디어 문해력 지표이다. 대상은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11) media today 뉴스(21.09.15), 금준영 기자, 미국 14개 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법 제정, 한국은?

12) Revised Code of Washington(워싱턴주 입법부), Section 28A.650.045 및 28A.650.050

13)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lliance(2024.11.10.), UK government aspirations for ML in schools. 영국 내 미디어 정보 및 문해력 증진을 위한 민간 협력 자선단체이다.

14) 핀란드 기초교육법(Basic Education Act 628/1998), 2010 개정안

교육의 내용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The Finnish Board of Education, FNBE)에서 커리큘럼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 질적인 교육 제공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¹⁵⁾에 따르면 핀란드의 미디어 문해력 교육에 관한 내용을 2019년 핀란드 교육문화부가 명시했다. 정책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모든 유형의 미디어를 포괄하는 미디어 문해력 증진의 포괄성, 고품질, 체계성이다. 단순 목표만이 아니라 그에 맞는 커리큘럼 또한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핀란드 교육문화부의 산하 기관인 국립시청각연구소(KAVI; Kansallinen audiovisuaalinen instituutti)는 미디어 교육을 장려할 법적 의무가 있는 정부 기관이다. 교육문화부와 국립시청각연구소, 핀란드 국립교육청, 법무부, 교통통신부, 교통통신청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협력한다.

단순히 초중고 교육과정을 넘어서 국민 전체의 미디어 문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위크(Media Literacy Week)는 핀란드에서 매년 미디어 문해력과 미디어 교육의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 단위 행사이다. 매년 50개 이상의 파트너 기관들이 협업해 각종 이벤트와 교육을 제공하며 이 캠페인에는 전국적으로 1,500~2,000개 지역 단체들이 참여한다.

가. 한국 미디어 문해력 수준 및 교육 현황

가의 자료 ②,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시간을 보면 2017년에서 2020년으로 갈수록 장시간 인터넷 사용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연계된 자료로 인터넷 사용 목적을 보면 여가 활동이 가장 높게 나왔고 차례대로 커뮤니케이션과 자료 및 정보 획득, 교육·학습 순으로 높게 나왔다. 특히, 자료 및 정보 획득과 교육·학습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이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큰 차이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한국 10대 청소년은 점점 미디어(인터넷)에 장시간 노출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의 주된 목적이 과거에는 단순히 콘텐츠 소비, 오락,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 등이었다면 현재에는 자료 및 정보 취득, 교육·학습 목적의 사용이 늘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가 활동 및 커뮤니케이션 목적 사용의 비율은 2015년 대비 2020년에 소폭 상승하였지만, 자료 및 정보 획득과 교육·학습은 대폭으로 상승한 것을 통해 인터넷 이용 빈도와 시간이 증가한 이유를 자료 및 정보 획득과 교육·학습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가의 자료 ①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해력 저하와 ‘저하’와 ‘매우 저하’ 항목 간 차이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으나, ‘저하’와 ‘매우 저하’라고 응답한 교직원의 수가 전체 응답자의 90퍼센트를 넘는다. 더불어 학생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를 실행했다. 특히, 다섯 가지 평가 항목 중 ‘글의 맥락과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와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한다.’의 항목을 살펴보면 교직원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단순 문해력(literacy)에 관한 조사였지만, 문해력(literacy) 자체가 미디어 문해력의 필요 요소이기에 미디어 문해력 수준 또한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가의 자료 ③은 PISA에서 만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문해력 평가를 위해 세부 항목을 나눠 교차 분석한 자료들이다. 위 자료들에서 교차 평가 요소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을 올바르게 발휘한 학생의 비율이 고정적으로 등장한다. 미디어 문해력에서 사실과 허위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과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은 정보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PISA 또한 이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교차 분석 자료에 이 항목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단순히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 수준만 봤을 때,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첫 번째 자료는 학교 과제를 위해 가정에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과 함께 교차 분석한 자료

15) European Commission Youth Wiki(2023.11.28.), Finland: Education and Training(6.8 Media literacy and safe use of new media)

다. 앞서, 한국의 10대가 자료 및 정보 취득과 교육·학습을 위한 사용을 조사한 것과 같이 학교 과제를 위한 인터넷과 컴퓨터 사용량은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교육과 학습을 위한 사용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라프에서 한국은 학교 과제를 위한 인터넷과 컴퓨터 사용량 항목에서 OECD 평균 수준보다 더 높다. 그러나, 사실과 의견 구분 능력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에 학교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이 인터넷 사용 과정에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자료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교육받았다고 응답한 비율과 교차 분석이 이뤄졌다. 이 항목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과 추천 알고리즘 기능 문제점 등과 연관있으며 미디어 문해력에서 주요 요소 중 하나다. 이 항목 또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나는 단순히 미디어 문해력 수준이 낮음과 국가 행정, 제도 차원에서 미디어 문해력 교육 수준이 낮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세 번째 자료에서는 학생들의 평균 읽기 성취도 항목으로 교차 분석을 진행했다. 평균 읽기 성취도는 단순 문해력(literacy)에 대한 항목이다. 단순 문해력 수준은 OECD 평균 이상으로 미디어에 대한 문해력 또한 절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 아님을 시사한다.

한국 교육부는 최근 2022 교육과정 개정의 추진 배경 중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 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 목적을 설명했다. 이에 내용 요소로써 미디어 문해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디어 문해력의 필요 이유를 시민성 함유의 내용 요소로써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 문해력은 시민성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는 단순히 미디어 문해력의 필요성을 민주시민교육,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미디어 문해력의 본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방향성이 잘못 제시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방향성의 문제에 이어서 미디어 문해력 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부재하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대상 놀이·체험 활동 중심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등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과목 신설, 중학생 대상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 교육과 연계한 기본·심화를 위한 정보 과목 개설, 고등학생 대상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 과목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내용이 과목 신설, 과목 개설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부재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는 문화예술 교육에서 미디어 콘텐츠의 이해와 창의적 표현, 비판적 수용 등 미디어 문해력 교육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이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및 시청자 교육 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능 정보화 기본법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먼저, 지능 정보화 기본법의 제44조, 제54조, 제64조를 근거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과정에서 과기부는 일정 책임을 요구한다. 더불어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 문제 파악과 해결 방안으로써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지능정보의 윤리적 측면에서 교육할 법적 근거가 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도 제2조(정의) 9항, 제32조, 제33조를 근거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에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관련된 법안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해야 할 명분이자 법적 근거이며 교육부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미디어 문해력이 기초 소양으로 포함되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과목별로 적용되는 내용에 따라 교육한다.

전반적으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마땅히 해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각 부처 간 협력도 미미한 편이고 구체적으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명확히 규정하는 단일 법률은 부재하다. 또한, 각 법률의 조항들은 해석에 따라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

육 계획이나 현황 및 실행은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부처의 법률에 근거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 해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사례

미국은 국가 특성상의 이유로 미연방 차원에서 미디어 문해력 교육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각 주마다 입법 절차를 통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조사된 바와 같이 워싱턴주가 최초로 미디어 문해력 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미국 내에서 선례로 남게 되었다. 후행적으로 다른 주 또한 관련 법률안 제정을 통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추세다. 미연방 차원에서 상위법이 미디어 문해력 교육 관련 법률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격인 각 주의 법률안이 미디어 문해력 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국 또한 하위법 차원에서 미디어 문해력 교육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 셈이다. 이외에도 민간 단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교된다.

영국 또한 국가 교육과정에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법적 의무가 없을 뿐 하위 기관에서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과거서부터 시행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Ofcom이 있다. 법적으로 권한을 인정받은 것은 2003년부터다. 영국의 방송, 인터넷, 통신과 우편 등의 산업에 대해 규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민의 공공이익을 도모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의 일환으로 미디어 문해력 증진을 도모한다.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성을 가진 활동이며 3년 단위로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는 체계성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에 근거하여 견제 가능 미디어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미국과 같이 상위법 차원에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체계적인 기관이 미디어 문해력 증진에 힘을 쓰고 있다.

영국은 법적 근거를 통해 하위 기관에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할 의무성을 부과한다. 반면, 한국은 이행할 법적 근거를 가진 조항은 있으나, 이를 이행할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부재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간 매개체가 없어 민간과의 협력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국가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민간 단체나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단절된 셈이다. 즉,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미디어 문해력 증진을 도모할 국가 기관이나 법적 권한을 가진 민간 단체가 필요하다.

핀란드는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는다. 핀란드는 미국, 영국, 한국과 같이 단순히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라 미디어 문해력 교육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다. 한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초 소양으로써 미디어 문해력을 강조했으나 법적 의무성을 부과할 효력을 갖진 못한다. 법적 의무가 아니기에 학교별, 교사별 편차가 존재하며 국가적으로 바라보면 교육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핀란드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단순한 의무 부과가 아닌 미디어 문해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문화부의 국립시 청각연구소 등 핀란드의 여러 국가 기관이나 민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질적인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차원을 넘어서 국가 단위의 캠페인 또한 매해 진행한다.

III. 결론 및 제언

미디어 문해력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었다. 미디어 문해력은 단순히 정보 활용 능력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 구조와 생활 양상이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핵심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미디어 문해력에 대해 “21세기의 도전과제들, 특히 잘못된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 혐오 발언, 미디어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기술 세트”라고 설명한다.¹⁶⁾ 미국의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육협회(NAMLE)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이 “비판적 사고 능력 개발, 부정적 신체 이미지 감소, 긍정적 자아 인식 촉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¹⁷⁾ 이러한 근거로 미디어 문해력 교육, 특히 청소년 대상 미디어 문해력 교육은 단순 정보 활용 능력을 넘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빈도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 이유로는 자료 및 정보 획득과 교육 및 학습 목적인 사용이 가장 높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의 미디어 문해력 수준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양적 접근은 증가하나, 낮은 수준의 질적 역량으로 인해 둘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다.

한국의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단일 법률이 부재하다. 교육 정책 또한 미디어 문해력을 기초 소양으로써 중요 요소임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실현 방향 또한 부재하다. 더불어 정부의 각 부처에 분산된 법적 근거는 오히려 각 부처 간의 협력 부족과 일관성 있는 정책에 어려움을 준다. 즉,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질적인 문제로, 이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할 기관이나 추진 체계가 부재한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한다. 앞서, 미디어 문해력 수준이 높은 선구적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법적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의 문제점으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의무화할 단일 법률이 없다고 언급했다. 핀란드는 기초교육법과 같이 법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부처에 분산된 법률안보다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법률안에는 단순히 미디어 문해력 교육의 의무화가 아닌 체계성이 필수적이다. 교육적 측면에서의 미디어 문해력에 대한 정의와 세부적인 교육 목표,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토대로 예산 확보와 같은 문제와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계획을 꾸준히 보완해야 한다. 선례로 영국의 Ofcom이 3년 단위로 미디어 문해력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 후 보고하며 지속적인 보완과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어야 한다. 단순 목표 설정과 추진 계획을 넘어서 평가 체계 확보와 지속적 보완은 정치적 변화와 같은 외적 요인으로부터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 단일 기관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앞서 주장한 세부적인 교육 목표와 추진 계획을 선두로 이를 전문적으로 실행에 옮길 기관이 필요하다. 영국의 Ofcom이나 핀란드의 국립 시청각 연구소(KAVI)와 같은 전담 기관은 정책 수립과 교육 과정 개발을 돋고 교육진 양성과 평가 체계 구축 및 평가 등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총괄하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전담 기관은 교육부 직속 기관으로 작용해야 한다.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될 경우,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관을 필두로 각 부처와 지방교육청 등 각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의 기관이 필요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교육과정의 확립은 선행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수법이 필요하다. 미디어 문해력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교육 목표를 계획한 후에는 그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와 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수법이 필요하다. 미디어의 범주는 광범위하며 AI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이에 맞는 교수법은 꾸준히 연구되어야 한다. 선행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이 설정

16) UNESCO-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17) NAMLE- Why is Media Literacy Important? (Five Meaningful Outcomes of Media Literacy Education: Interventions help people make more informed health decisions)

한 목표에 맞게 재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핀란드의 미디어 문해력 커리큘럼, 미국 워싱턴주의 커리큘럼,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미디어 정보 문해력 커리큘럼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와 시민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디어 문해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주도 기관은 국가의 뜻이지만, 비영리 시민 단체와 같은民間의 협력은 시민의 뜻이다. 문제 인식과 자발적 시민 참여는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참고 문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9134600501>

연합뉴스(2021.12.18.), 권선미 기자, 문해력 리포트 ② 한국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마저...OECD 바닥권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43>

media today 뉴스(21.09.15), 금준영 기자, 미국 14개 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법 제정, 한국은?

<https://app.leg.wa.gov/RCW/>

Revised Code of Washington(워싱턴주 입법부), Section 28A.650.045 및 28A.650.050

<https://mila.org.uk/schools-ml-govt-aspires/>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lliance(2024.11.10.), UK government aspirations for ML in schools. 영국 내 미디어 정보 및 문해력 증진을 위한 민간 협력 자선단체이다.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inland/68-media-literacy-and-safe-use-of-new-media>

European Commission Youth Wiki(2023.11.28.), Finland: Education and Training(6.8 Media literacy and safe use of new media)

<https://www.unesco.org/en/media-information-literacy>

UNESCO-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https://namle.org/why-media-literacy/>

NAMLE- Why is Media Literacy Important? (Five Meaningful Outcomes of Media Literacy Education; Interventions help people make more informed health decisions)

가짜 뉴스 실태와 대응 방안-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2023.12), 방송통신위원회 김용희 외 7명,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3-34)

OECD (2021), 21st-Century Readers: Developing Literacy Skills in a Digital World,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83d84cb-en>

'OECD (2021), 21st-Century Readers: Developing Literacy Skills in a Digital World, PISA, OECD Publishing, Paris'; supplement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조사 결과(2024.0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3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0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통계표(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5.03.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고찰(2024.12.24.), 이순덕

Basic Education Act 628/1998_Amendments up to 1136/2010

The Media Literacy Index 2023(2023.07), Measuring Vulnerability of Societies to Disinformation,
www.osis.bg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2021.11.24)